

다산포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2월 3~4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그 자신의 정치생명을 중단시킴은 물론 한국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다. 비록 짧은 시간의 계엄이었지만 그 파장이 길 것이 분명한데, 윤 대통령의 하야는커녕 탄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계엄은 국민들과 야당의 저항으로 6시간으로 끝났다. 그러나 계엄의 이면에는 한국정치가 내전에 깊이, 오래 빠져들었음을 말해준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내전적 양상은 여러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특수성으로 '군사주의'를 지목할 수 있다. 군사주의는 논자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넓게는 제반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관행과 의식을 말한다. 이때 '폭력적'이란 비민주성, 일방성, 위계성, 법치에 반하는 성격 등과 관련이 있다.

탈정치의 정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나타난 것은 물론 아니다. 대화와 협상, 타협과 경쟁이 국회 내에서,

탄핵 국면에서 생각하는 삼중 평화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다. 팬데믹정치는 명백한 군사주의적 현상이다. 정치를 우군과 적으로 나누고 경쟁을 적대화, 대화를 충돌로 바꾸고 정당화하는 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에서 국회를 '법치 집단의 소굴'로 지칭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견제와 균형을 민주정치 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정치의 내전적 양상은 피아 구도의 형성과 적대적 양상만이 아니라, 그 기준이 분단과 관련이 있다는 데 그 특수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계엄 발표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북한은 안보 위협으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통일문제는 국내정치적 균형을 회피하는 소재로 호명받기도 하고 정치적 경쟁세력을 약화화하는 데도 유용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을 주요 명분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 내전이 국가 단위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트럼프의 귀환과 우크라이나,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국제분쟁의 일상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한국 경제와 안보를 제약할 것이다. 탄핵국면이 길어지면 이런 리스크가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

계엄사태를 특징짓는 주요 행위자는 군부이다. 이번 계엄사태에서 소수 정치군부의 준동으로 군은 총을 들

고 국회를 진입하였다. 그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확신했던 것(북한 오보통신에 대한 원점타격 시도와 그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대응 초래)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군의 불법 정치개입은 다양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현장 군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공할 수 없었다. 북한과의 충돌 우려도 합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계엄세력이 국민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심지어 군부 내부를 아우르는 민주평화의 식에 의해 꺾인 것이다.

탄핵국면은 계엄을 종식시키고 민주정치를 복원해가는 과정에서 조성된 과도기 상황이다. 그 불안정성과 이면 한국정치의 내전적 양상을 반영해 삼중의 평화를 제안해본다. 삼중 평화는 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원리에 따른 경쟁과 타협 ②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③ 개개인의 마음에서 열린 평화, 성찰하는 평화를 말한다.

이 셋이 선순환할 때 한국형 평화의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안으로는 법(法), 정치권으로부터 물(水)이 흘러가듯이(去)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밖으로는 북한과의 갈등을 자제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평화는 수단, 절차일 뿐만 아니라 목표이자 거울이다. 이상 삼중 평화를 전개해나갈 때 민주정치의 회복을 향한 탈(脫)탄핵국면은 민주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가 속한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社說

대통령 권한 여당 대표·총리 이양은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민담화를 통해 여당과 국무총리가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의 공동 담화는 윤 대통령 국회탄핵 표결 무산에 따라 자신들에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 책임은 우리 당과 정부에 맡긴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 담화는 곧바로 위헌과 2차 내란 논란이 휩싸였다. 대통령의 권위나 사교 없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특히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양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논리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의 양심고백도 쏟아지고 있다. 이제 국정 안정의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계엄 사태 속 한강이 전한 희망과 위로 메시지

세계인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로 국운이 휘청이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4 노벨상 시상식이 오늘(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시상대에 오지만 국민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강은 이번 계엄사태에 대한 준엄한 발언과 위로의 말로 국민에게 큰 위안을 줬다. 그는 지난 7일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작가로서의 소신 발언이다. 스웨덴 공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히기도 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간들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소년이 온다)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은 1980년 5월처럼 총칼로 무장했지만, 국민은 저항했고, 결국 계엄 시도를 막아냈다. 한강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군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답습했다.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 모습도 다르지 않다. 감·경의 수 수 주체 논란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모든 정략과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고



한미경 독일 하늘퍼블리싱 대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시아인 혐오현상이 대두될 때,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 독일에서 사는 것이 고되게 느껴지던 시절, 나는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하늘출판사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하였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영혼이 조우하고 정신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옆집에 이웃으로 살아도 영원한 이방인이다. 아무리 포용력 넘치는 독일사회라고 해도 피부색과 생김새가 유난히 다르게 생긴 한국인은 더더욱 그러하다.

독일인들이 프랑스인처럼 자기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독일인만큼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며 타문화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데도, 한국문학이 이들에게 가 닿지 못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열심히 독일어로 번역하고 책으로 출판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것이라고 그 당시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한계는 다양했다. 출판관행이나 출판판정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문학이란 주제로 넘어가자면 왜 독일은 한국문학의 무덤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다가오는 답이 있었는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소식은 그래서 더더욱 나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한강 노벨상과 독일에서 한국문학을 알리는 일

루터의 성경 독일어번역이 세계사에 던진 충격, 때마침 완성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한 엄청난 전파력, 괴테와 실러가 포문을 연 후 유럽 전체를 풍미하던 독일낭만론, 심지어 마르쿠스의 '자본론'은 또 얼마나 많은 지성을 사로잡아 근현대사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다 못해 그림형제와 인간설화수집조차도 세계 문학 태동의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음을 생각해보면 독일인에게 있어 글이란, 문학이란, 책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독일인에게 있어 글은 일종의 정신적 쿠테타이다. 모든 다양한 종류의 억압과 금기에 저항하는 용기이며, 자유를 향한 외침인데,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실험이다. 독일인이 이것은 문학이라고 정의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근본인 자질은 그러니까 금기를 파괴하는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에 있다.

얼마전 찾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강 작가의 독일어판권 독점자인 아우프바우 출판사를 찾아 축사를 건네었다. 출판사 담당자는 표지 디자인은 한강의 시적인 문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것, 채색의 지는 맨부커상 수상작으로 출판 직후 바로 독자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후속 출판 작품 대부분, '소년이 온다'도 독자들은 어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독자들이 쉽게 선택하지는 않을 책, 한강의 책.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라고 나는 생각했다. 독일의 수많은 독자들이 한강의 '채색주의자'가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란 이유로는 읽지 않으리라. 그들만큼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의 위력이 설 자리는 별로 없다. 자기 개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독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만큼 개성이 강한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책임 뿐인 것이다. 모든 작가는 자기만의 독자를 찾는 법! 고로 한강은 한강의 독자를 찾은 것이다.

문학사에 남을 위대한 별은 굳이 베스트셀러 작가일 필요가 없다. 아무도 말하지 못한 세계를 옹호하게 관조했고, 자신의 피와 살로 죽음과 자유를 먹고, 그녀의 영혼 안에서 사하고 정제해 낸 언어와 문장으로 키워서 우리들에게 현현시켜준 자로서 월계수관을 쓸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한 인간이 가장 개성적인 고유한 존재로서 존재할 자유를 외칠 때 그 순간 그의 머리카락과 피부색과 눈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란 종으로서 나타나는 신체의 차이는 공통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 '나'라는 개인성을 느끼게 해주는 책을 만난다면 당신 개인의 신성함, 특별함, 유일무이함, 가치로움, 있는 그대로 완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이다.

한 개인의 가장 개인적인 삶, 개인성의 핵심은 그의 상처와 무관하지 않아서 고통, 상실, 공포, 소외, 슬픔들은 오히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융합되어 있으니,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제 본질의 괴물에 먹히기도 하고, 가위날리기도 한다. 그런데 한강은 그녀의 끈질김으로 이 독소들을 긴 시간을 들여 삭혀낼 줄 알고, 약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그러니까 인류에게 몇 안되는 (희)귀한 작가인 것이다.

긴 여독을 기다린 하늘을 뚫는 아침 태양처럼, 공에서 색을 잉태해주는 작가는 그래서 하나의 구원이자. 그 경이로운 자리에 바로 한강이 있다. 그녀는 세계문학사에서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세계를 외친, 하나의 새로운 태양이기 때문이다.

기고



이태호 광주미술상 운영위원 명지대 석좌교수

광주미술상은 광주 미술계의 자랑이다. 광주에서 가능한 일로 광주의 자랑이기도 하다. 지역 중진 미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후배들 창작 지원을 위해 광주미술상 기금을 조성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나도 시작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고 기금 마련 전시에도 출품해 짝꿍 보냈다.

광주미술상 설립은 1992년 강연군 화백이 금호미술상으로 받은 500만 원을 내놓으며, 이를 종자 돈으로 삼아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뒤 1995년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창립되었다. 박상섭, 오승운, 황영성, 우재길, 김형태 화백 등 당시 중진 원로작가들이 적극 중지를 모으고,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40여명 내외의 작가들이 기금마련전을 조직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상금과 운영비를 채워 발족했다. 여기에 당시 이정일 전남일보 사장, 이상섭 동강학원 이사장, 김재균 북구정장 등 후원인이 참여해 더욱 탄탄해졌다. 또 광주시나 광주비엔날레 재단, 금호문화 재단, 동강학원 등 단체의 후원과 기탁금도 함께 곁들였다.

이같이 기틀이 잡히면서 2012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광주미술상은 청년 작가의 꿈이자 금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냈다. 격식도 갖추게 되었다. 원로 중진 작가들의 중지를 모아 후배 작가를 격려하고, 선후배가 교류 소통하는 모임에 애호구나 민관이 협력해 위원회가 꾸려진 셈이다. 광주미술상은 1938년 의재 허백련 선생님께서 무등산 아래 호남 서화계의 후진을 위해 발족했던 '연진회(鍊眞會)' 이후 광주 미술의 중심으로 섰다.

1995년 초대 운영위원장은 박상섭 화백이 맡았다. 이어 강연군, 정승주, 황영성, 송용 화백으로 이어졌고, 2012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바뀌며 이사장으로 우재길, 배동환, 조규일 화백이 맡아 왔다. 지금 이사장은 오건택 화백이다. 2015년 창립 20주년에는 기금 마련 전시에 80여 명으로 불어나 사단법인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시대가 내려오며 자연스레 발기인이던 중진 작가가 원로가 되었고, 고인이 된 분도 여럿이다. 미술상 수상 작가도 마찬가지로이다.

1995년 광주미술상 후보를 추천받아 첫 수상자를 냈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에 주어졌다. 지역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민중미술 단체가 받은 것이다. 2회 수상자부터 올해까지 25세~45세 사이의 개인에게 돌아갔다. 송필용(2회), 김동하와 주홍(3회 공동 수상), 문인상과 박동진(4회 공동 수상), 이준석, 박종석, 주재현, 이이남, 조성호, 나병규, 김숙민, 김도기, 신창운, 임병중, 박현수, 김진화, 진시영, 박선주, 임남진, 박소빈, 이정기, 박인선과 윤세영(22회, 공동 수상), 신호운, 권승찬, 이인성, 양나희, 윤종호, 유지원, 정정하, 조유나(30회) 등 개성이 뚜렷한 32명에게 광주미

술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유화, 수묵화, 조각, 판화, 설치, 영상, 뉴미디어, 정원예술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었다. 또 구상과 추상, 지역 전통의 계승, 민중미술 등 이념의 차이도 끌어안으며,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서른 나이로 성숙한 것 같다. 동시에 수상 작가들도 활발한 작품활동과 예술적 진전을 이루어냈다. 큰 발돋움을 기대하게 한다.

이젠 수상 작가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도 이루어졌다. 잘 알다시피 유화에서 인상주의의 화파를 구축한 오지호의 후예, 남종화 전통을 승계한 의재 허백련과 남부 허건의 후예들이 전남과 광주 지역 미술의 중심이었다. 1960~70년대 모더니즘 유입,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성장으로 새 환경이 정착했다. 금세기가 들어 다양한 발언과 개성을 쏟아내는 새로운 미디어 작업의 수용도 열렬하다. 디지털이나 AI가 등장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신소재의 부상이나 신문명의 확산을 앞둔 시대에도 광주미술상이 다음 50주년 100주년을 끌어갈 기반인 셈이다.

광주미술상은 미래 세대 광주 청년 작가의 꿈이자 금지라 이를 만하다. 운영위원회 조직부터 여러 어려움을 딛고 30년을 유지해 온 재단 구성, 그리고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수상자 결정까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뽀냄이다. 이는 예술가로 살기 녹록하지 않을 불안한 시대 여건에서, 광주가 세계로 뻗어나갈 예술 자산이자 커다란 힘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도 광주미술상이 지속되며 거듭나리라 확신해 본다.

無等鼓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 비상 계엄령을 내렸다. 무장한 공수부대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내린 후 유리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속보를 접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은 지체없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갔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취임선서를 하며 헌법에 따라 '입헌(立憲)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스스로 유린했다. 시민들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처럼 손쉽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진위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한순간에 한국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K-컬처'로 드높아지던 국격(國格)도 추락했다.

더욱이 계엄사령부 '도고령 제1호'는 시퍼렇게 날선 비수였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박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

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와 같은 문구에 숨이 턱 막혔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직격한 5항 '처단한다'는 표현에는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위협적·적대적·극단적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지난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탄핵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와 광주 옛 전남도청 광장에 앉아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민의(民意)를 유린했다. 시민들은 국군 예로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당 태종의 언행록인 '정관정요'에서 "군주는 배와 같고 국민은 물과 같으니(君舟民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水能載舟) 뒤엎을 수도 있다(亦能覆舟)"라고 했다. 여당은 성난 물이 배를 뒤엎을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부 수반에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집(我執)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